

과업 22: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협업 구성을 위한 도입 질문

교회, 초교파 단체, 일터의 기독교인들은 인종 차별에 도전하고 화해의 대리인으로 일어나서 분열된 민족과 종족 구분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제자 삼기 위해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

설명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긴장은 사회, 교회, 그리고 때로는 덜 날카롭더라도 주류 일터 내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분열을 낳는다. 이러한 상호 수용의 결핍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환영을 받으며 나누어야 할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약화시킨다. 또한,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긴장이 교회 내에 나타나고, 교회가 다른 이웃 교회와 그들의 제자 삼는 노력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을 때 대위임령 사역은 약화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는 방식이 분열된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 자신의 사랑을 가장 잘 증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따라서, 인종적 불화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인종차별에 도전하여 화해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민족주의에는 지역적 차이가 있지만, 민족주의가 차별 없이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이 대화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사항을 탐구한다:

협업 질문

- 민족주의는 어떻게 대위임령에 장애물이 되며, 이에 대응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교회/평신도 지도자와 선교단체는 어떻게 교회 내에서 화해의 적극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 교회, 선교단체, 일터 조직, 그리고 모든 영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더 넓은 사회 내에서 화해의 적극적인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 어떻게 교회, 선교단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조직이 대위임령에 합당한 일치와 평등한 기회의 목소리로 드러나고 명성을 얻을 수 있는가?

하위 주제

- 교회 내 인종차별(지역적)
- 사회 내 인종차별(지역적)
- 기독교 선교 구조 내 민족주의
- 일터 조직 내 민족주의

2024 서울-인천 대회 준비

대위임령 현황 보고서의 다음 섹션을 읽어보라.

- 로잔 신학위원회가 작성한 서론
- 1부, 텍스트와 그래픽으로 구성된 전 세계적인 대위임령 현황
- 2부, '민족주의'에 관한 논문
- 3부, 주로 당신이 섬기는 지역교회나 선교단체가 위치한 특정 지역에 관한 자료